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운곽

전주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평화엔지니어링 작품 당선작 선정

전주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힐링관광의 거점 공간이 될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의 밑그림이 나왔다.

전주시는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평화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힐링센터 조감도.

(주)평화엔지니어링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콘셉트의 창의성, 이용 효율성 등 공간계획의 적합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 다양한 공원 활성화 전략 등의 측면에서 경쟁작에 비해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산칠봉과 초록바위 일원의 장소적 특수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한옥마을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관시설을 구축해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초 구상한 기본계획과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에는 총사업

비 172억 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6만 1100㎡에 △랜드마크 지구 △힐링캠프 지구 △플라워갤러리 지구 △힐링로드 등 4개 지구가 조성된다.

랜드마크 지구에는 벙커형전망대와 전망데크, 달맞이정원 등이, 힐링캠프 지구에는 힐링센터와 옥상정원, 하늘 바람길, 풍욕장 등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583㎡ 규모의 힐링센터에는 그린공예 체험교실과 원예치유실, 카페테리아 등 치유·체험의 공간이 마련된다.

플라워갤러리 지구에는 허브가든과 향기가든, 오색화단 등이 조성되고, 힐링로드에는 거점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크로드와 그림자조경, 포장길 프린팅 등으로 채워진다.

전주시 정원도시지원본부 관계자는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쾌적하고 활기찬 수준 높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향후 전주 전역, 나아가 전북 광역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정책기획관은 "이번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이 생기를 되찾고,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곳곳서 골목상권 드림 축제 개최

내달 18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 등 총 18곳서 진행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골목상권 드림 축제'가 지난주 혁신도시 상점가에 이어 지역 곳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확대된다.

전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서신동 길공원 일원 등 9개 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개소 등 총 18곳에서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꿈(Dream)을 주제로 지역 상권에 소비활력을 불어넣고자 열리는 골목상권 드림 축제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인 등과 함께 상권 특색에 맞는 소비촉진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마감세일 및 뭉치이 세일 등 쿠파드림 △영수증 이벤트 및 메뉴 할인행사 등 나뉘드림 △영세점 포에게 유명 셰프의 비법을 전수해주

는 가치드림 △식당 가족 할인, 동네 골목 소문의 장 등 가족드림 등이 특색 있게 운영되며, 상권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전시와 버스킹 공연, 동네식당 밀키트 판매 등도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우선 오는 27일에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 우아4길 등 골목상권과 중앙상가시장, 모래내시장, 동문상점가, 서부시장, 남부시장, 신중앙시장, 전주전자상가, 전북대학교로상점가 등에서 열린다.

첫마중길 등 유아동 권역에서는 유아동 블럭 '할인데이(10% 할인행사, 경품)'를 비롯해 플라마켓과 먹거리장터, 버스킹 등이 펼쳐진다.

중앙상가시장에서는 의류 20% 할인 행사, 모래내시장에서는 마감특가세일이, 전북대학교로상점가에서는 전대로 플레이존(경품, 식사권)과 창업존(전북대 창업지원단 제품 판매)이, 남부시장에서는 먹거리장터와 청년블 10

주년 행사가, 신중앙시장에서는 자체 할인행사와 함께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물론 평화동 만내3길 인근, 서화동예술마을 일대, 여의동 편운로 상권에서, 11일에는 서신동 길공원 일원에서 이어져 18일까지 지속적으로 연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과 21일 혁신도시 시계탑광장 상가와 기지제 상가에서는 각각 '시계탑 첫눈 오는 날 만나다', '기지제 노을 음악회'를 주제로 혁신상권 드림축제가 개최됐다. 팍페라 등 다양한 공연과 주민참여 플라마켓,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등이 추진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제공된 상가사용쿠폰들은 18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정책기획관은 "이번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이 생기를 되찾고,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쇼핑몰·영화관 갖춘 도시공항 만들자”

전주시·캠틱종합기술원 '드론 지식정책포럼 전주'서 제기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이나 드론 전용 교통관리 체계 등 UAM(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훈)은 22일 전주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드론 지식정책포럼 전주 2021'을 개최했다.

포럼은 대한민국 K-드론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및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윤광준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정민철 한국항공공사 경영전략부장은 각각 '수소 e-모빌리티 기반 UAM/RAM 생태계 구축전략'과 'Ground Infrastructure for UAM(도심항공교통 기반시설)'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윤광준 교수는 "UAM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착륙장과 쇼핑몰, 공연장이 복합된 '전주시 버티포트(vertiport) 콤플렉스'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수소차 주유소와 쇼핑몰, 영화관, 드론 관련 벤처 단지 등을 집적한 복합 건물 단지를 조성해 전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구축하고, 이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강남구 도시공항과 연계하는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민철 경영전략부장은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착륙장 인프라 구축과 UAM 전용 교통관리체계 마련, UAM 전문인력 양성 등이 협력적으로 준비돼야 한다"면서 "UAM 교통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덕진 전북대학

교 기계설계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조재익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과 전정규 한화시스템 UAM 전략사업팀장, 김성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옛지컴퓨팅응용서비스연구실장, 송금현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정책기획관 등이 토론을 펼쳤다.

조재익 사무관은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주관 부처로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인프라 확대, 드론 상용화 모델 발굴 실증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창 연구실장은 "전라북도와 전주는 지역 전략산업인 수소와 탄소와 연계한 그린 UAM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최적지로 판단된다"면서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육성 전략을 파악하고 지역의 UAM 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을 집결해 차별화 전략을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정책포럼이 개최된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에는 시가 구상 중인 드론정책 장기비전과 그간 발굴한 정책을 제시하는 홍보관이 설치됐으며, 시가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드론기업 홍보전시관을 통한 마케팅 활동도 이뤄지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산을 보였다.

향후 시는 국내·외의 우수한 드론 전문가들이 정책을 논의하는 '드론 지식정책포럼'을 매년 개최해 K-드론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도록 하면서 전주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포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은 22일 전주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드론 지식정책포럼 전주 2021'을 개최했다.

전주시, 선미촌 정원숲 조성한다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된 전주 선미촌 곳곳에 화사한 정원숲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선미촌 일원에서 정원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성 대상지는 기린대로와 권삼득로, 물왕말2길 일부 구간과 인권공간(시티가든1), 기억공간(시티가든2), 뜻밖의 미술관 일원 골목 등이다.

선미촌 정원숲 입구 쪽인 기린대로 피복지의 경우 기존에 식재됐던 조팝나무가 이식되고 수크령 허벌론, 애기노랑금계국, 크라스페디아, 겐틀랑초가 식재돼 가로정원으로 조성된다.

선미촌 정원숲의 주요 골목인 물왕말2길 일부 구간에는 이동식 가로화단

이 설치되고 여기에 목수국, 추명국, 에케네시아, 서양튤립 등이 식재된다. 또 선미촌 내 인권공간과 기억공간에는 정원형 식재를 진행해 주민들을 위한 어울림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선미촌에 가로정원과 골목정원 등이 조성되면 주민이 연대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선미촌 일원이 사람과 정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내나라여행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상' 받아

전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1 내나라여행

박람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홍보부스 운영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2021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150여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0여 부스가 운영됐다.

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전주 여행 퀴즈게임과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기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여행 상담을 통해 전주를 '가장 먼저 가야 할 여행지'로 적극 홍보하는 데 힘썼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